

-
- I. 머리말
 - II. 유적 현황
 - III. 눈 관념 유적·유물과 신화
 - IV. 선사 및 고대 한국의 눈 관념
 - V. 맺음말

| 낙동강변 암벽에서 발견된 상주 물량리암각화의 주제는 ‘사람의 눈’이다. 눈에 대한 종교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가장 오랜 사례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유적인 시리아 텔 브락 유적의 눈 사원에서 발견된 눈 형상 조소 작품들이다. 청동기시대 이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들과 영웅들의 눈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도 특별한 눈 관념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눈은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 ‘호루스의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성립시켰다. 이집트의 인물상에서 눈 표현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인 것도 이런 관념의 영향일 것이다. 인도의 신화에는 제3의 눈, 지혜의 눈이 언급되고, 그리스신화에는 100개의 눈을 지닌 아르고스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모두 특별한 눈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상주(商周)시대 청동기의 도철문(饕餮紋)과 사천 삼성퇴(三星堆)문화의 신면(神面)은 눈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변형된 서사물인 『산해경』에도 눈에 대한

* 全虎兪,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jjeonang@gmail.com
 투고일: 2022. 9. 14. 심사완료일: 2022. 11. 18. 게재확정일: 2022.12.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2.43..7>

종교적 관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8~9개의 사람 머리를 지닌 신이한 존재들은 중국에도 고대부터 일부 지역에 눈에 대한 종교적 관념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비한 능력을 지닌 거울 관련 괴담과 기사들도 눈 신앙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한국의 신석기시대 유물 가운데에는 눈을 강조한 작품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화, 전설에는 눈 관념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그런데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楸南)에 관한 일화처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부 남아 있다. 통일신라 하대나 고려시대에 불교의 밀교 계통 종파에서 주로 신앙한 십일면관음보살, 천수천안관음보살 인식이 눈 관념과 연결되어 민간신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 상주 물랑리암각화는 한국의 선사 및 고대 눈 관념의 역사가 낳은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주 물랑리암각화는 한국 눈 관념의 역사를 증언하는 주요한 유적이다.

| 상주, 물랑리암각화, 눈 관념, 진실의 눈, 밀교

상주 물랑리암각화는 눈 표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낙동강변 바위 절벽에 선각화로 남겨진 이 유적과 같이 사람의 눈만 커다랗게 나타낸 다른 사례를 이미 발견된 한국의 암각화 유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동아시아나 서아시아, 유럽에서도 암각화의 주제가 사람의 눈인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특별한 관념의 대상이 되어 신화나 전설에서 언급되고, 조소나 회화로 표현된 역사는 깊고 오래다. 시리아의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고대 초기에 걸친 유적 중에는 눈을 조소 작품으로 제작해 봉안한 사원이 있고, 그리스에서는 사람의 눈이 커다랗게 묘사된 토기가 여러 점 발견되었다. 인도나 북유럽의 신화에는 ‘지혜의 눈’, ‘전지전능한 눈’, ‘제3의 눈’에 대한 언급과 일화가 있다.

상주 물랑리암각화가 새겨진 시기는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눈이 크게, 혹은 또렷하게 묘사된 사례

는 있으나, 이런 유물을 상주 물량리암각화와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세계의 여러 문명권에서 신화나 전설로 언급되고, 심지어 신앙 대상이 되어 회화나 조소 작품으로도 남겨졌음을 함께 고려할 때, 상주 물량리암각화가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의 오랜 역사와 관련 있는 유적임은 확실하다.¹⁾ 이 글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상주 물량리암각화가 한국 눈 관념의 오랜 역사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주 물량리암각화는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산131(해발고도 57m) 낙동강변의 가파른 절벽에 새겨졌다(그림1).²⁾ 물량2리 마을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암각화 앞으로 조성된 산책로에서 바로 낙동강이 보인다. 내성천과 영강이 합치면서 이루어진 물길이 흐르는 낙동강변의 경사가

-
- 1) 본문 중에 사용되는 ‘눈 관념’, ‘눈 신앙’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으나, 바위나 나무와 같이 동물이나 인격이 아닌 식물이나 물질도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는 사례가 자주 있음을 고려하면, 생명체의 특정 부분이 종교적으로 특별한 관념의 대상으로 떠올라 신앙 되는 현상도 기이한 일로 여길 필요는 없을 듯하다.
 - 2) 이 암각화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연구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다(2017.1.5. 영남일보 1면). 필자는 연구팀과 함께 조사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를 근래 울산대 반구대연구소가 발간한 학술연구총서 『한국의 암각화 2020』에 실었다. 2021.5.5에는 경주대 상주 물량리암각화 조사연구팀과 다시 암각화 유적 현장을 조사하면서 바위의 인물상 암각에 ‘연애’라는 글자를 포함한 근현대의 암각이 몇 차례 더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상주 물량리암각화는 군위 수서리암각화, 포항 신정리암각화와 함께 근래 영국의 고고학 전문지 ARCAEOPRESSES의 Rock Art Studies : News Of The World VI, 165~173쪽에 실린 글 ‘The Discovery of New Rock Art in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2015-2019)’에 소개되어 세계 암각화학계에 알려졌다.

급한 곳이다. 이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위치가 합류한다.

상주 물량리암각화는 강을 끼고 길게 뻗어 나간 단애 암벽지대에 세 군데 정도 나뉘어 새겨졌다(그림 2~5).³⁾ 암각화를 발견한 상주시청의 김상호는 바위 근처의 한글 명문이 새겨진 지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암각화 역시 근래의 작품으로 판단하고 한동안 암각화 연구자나 외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물량리암각화는 한국에서 발견된 다른 암각화와 표현된 내용이 달라 어떤 의도로 새겼는지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

동서 장축의 너비×높이 12.50×3.20m 크기의 편평한 암벽 한가운데 5.40×2.10m 크기의 공간에 암각화가 집중적으로 새겨졌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면 좌우는 앞으로 튀어나와 가운데 암각 면을 에워싸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배치는 암각 부분이 제의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3) 이하 본문에 실린 상주 물량리암각화 실측도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의 암각화 2020』에 실린 도면 125~128을 사용하였다. 사진은 필자가 촬영하였다. 이하 출처 표시가 없는 사진은 필자가 소장처를 방문하여 촬영한 것이다.



그림 1) 상주 물량리암각화 주암면 중심부 사진과 실측도

그림 2) 상주 물량리암각화 주암면 전체 실측도

주암면 바위의 세로로 길게 뻗어내린 균열선으로 말미암아 왼편, 가운데, 오른편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일 왼편에 새겨진 것은 머리가 크고 하반신 일부가 확실치 않은 인물이다. 0.74×1.28m 크기의 이 인물은 두 개의 큰 눈 위에 제3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새겨진 점에서 눈길을 끄는 경우이다. 코는 표현되었으나, 입은 새겨지지 않고 코에서 턱까지 두 선이 나란히 내려온 상태이다. 커다란 머리 아래에 몸에 해당하는 삼각형 선을 위아래 잇달아 새겼고, 팔로 볼 수 있는 선 네 개를 좌우로 비스듬히 호선꼴로 뻗어 내려가게 했다. 아래의 두 번째 삼각형 아래로는 다리에 해당하는 선이 두 개 내려갔으나, 한쪽은 뚜렷하지 않다. 이 인물의 머리 옆에 얼굴 윤곽 없이 두 쌍의 눈과 하나의 코가 새겨진 사람이 하나, 두 눈과 코만 새겨진 사람이 하나 있다. 이 인물에게서 왼편으로 좀 떨어진 곳에도 두 눈과 코만 새겨진 사람이 하나 있다.



그림 3) 상주 물량리암각화 별면 1 실측도
그림 4) 상주 물량리암각화 별면 2 실측도
그림 5) 상주 물량리암각화 별면 3 실측도

1.04×1.43m 크기의 가운데 인물은 하반신이 제대로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일부러 몸과 팔, 다리를 선으로 나타내려 한 듯 두 선이 아래로 호선을 이루며 내려왔고 그 끝에 두 발이 묘사되었다. 왼팔은 수평으로 들어 손가락까지 잘 보이게 폈지만, 오른팔은 들어 선으로 표현된 손가락으로 귀를 잡은 상태이다. 커다란 두 눈 위로 머리가 위로 등글게 솟았다. 코와 귀는 표현되었으나 입은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다. 가운데 인물의 수평으로 쳐든 왼팔 아래에도 두 쌍의 눈과 코가 위아래로 표현되었지만, 얼굴 윤곽은 새겨지지 않았다. 가운데 인물의 두 다리 사이에도 눈과 코가 새겨진 사람이 있다.

오른쪽 인물상은 여럿이다. 머리 윤곽이 뚜렷한 사람 하나, 머리 윤곽이 애매하게 표현된 사람 하나가 나란히 새겨졌고, 두 눈만 표현된 사람도 하나 있다. 제일 왼편의 머리 윤곽이 뚜렷한 사람의 머리 위로는 안테나처럼 보이는 선이 한 가닥 솟았다.

별면 1에는 한 쌍의 눈이 미완성 상태로 표현되었고, 별면 2에는 한 쌍의 눈이 눈썹과 함께 새겨졌다. 그 외의 선각은 코와 입으로 보기에 모호하다. 별면 3에도 한 쌍의 눈이 있는데, 그 아래로 몸을 나타내려는 듯한 선이 여러 방향으로 그어졌다. 언뜻 두 팔과 두 다리를 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얼굴의 윤곽선이 없고 팔과 다리를 선으로만 간단히 나타냈다. 이 인물은 울산 반구대암각화에 보이는 수족과장형 인물과 유사한 표현을 의도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⁴⁾

주암면 가운데 인물 아래로 한글과 한자가 새겨졌는데, 한글은 새긴 지 오래지 않은 듯하다. 한자 ‘三月’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듯이 보인다. 별면 2에는 근대에 새겨진 ‘연애대(장)’이라는 한글이 암각 면 일부를 훼손했다.

4) 전호태,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2013, 142쪽.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일찍 주목받고 때로 신앙의 대상처럼 여겨진 것은 여성의 음문과 젖가슴이다. 특히 여성의 음문은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받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 아브리블랑샤르에서 발견된 바위의 음문은 기원전 3만 년 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바위에 음문이 묘사된 가장 오랜 사례이다.⁵⁾ 신석기시대 후기에 발명된 토기의 바깥 면은 음문 표현을 위한 화면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⁶⁾ 신석기시대 후기에 동유럽과 남유럽을 무대로 번성하였던 쿠쿠테니 문화의 토기에는 짝을 내는 씨앗으로 서의 이미지가 음문으로 표현된 듯한 무늬가 자주 등장한다.⁷⁾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에 걸쳐 많이 만들어지는 여신상에 음문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젖가슴이다. 젖가슴이 두드러진 신석기시대 여신상은 젖가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막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유를 한다. 새로운 생명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이 여성의 젖가슴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을 것이다. 젖가슴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거나 독립된 조소 작품으로 만든 사례 가운데 이른 것은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여신의 젖가슴’이란 개념도 이 시기에 성립했을 것이다.⁸⁾ 젖가슴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아조각 등이 2만 4천 년 전의 체코의 돌니베스토니체 유적에서 수습되었다. 젖가슴 모양의 구슬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5) 마리아 김부타스, 고희경 역, 『여신의 언어』, 한겨레출판, 2016, 99쪽.

6) 신석기시대 후기의 토기는 신에게 바치는 제의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토기의 표면에 신에게 올리는 기도나 기원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전호태, 『고대에서 도착한 생각들』, 창비, 2020, 52~54쪽).

7) 마리아 김부타스, 고희경 역, 앞의 책, 2016, 101쪽.

8) 위의 책, 31쪽.

여성의 음문, 젖가슴과 함께 인간의 관심을 끈 것이 손이다. 선사시대 미술작품 중에는 사람의 손을 집중적으로 그린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 핸드프린팅 Hand Printing은 손을 화면에 대고 그 위에 안료를 뿜어 손의 형상이 남게 하는 기법인데,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조상 때부터 찾아가는 바위 동굴 벽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핸드-프린팅을 남긴다.⁹⁾ 신석기시대의 마을 유적인 터키 차탈회유 주거지 벽에도 손을 여럿 그린 것이 남아 있다. 이외에 선사시대 미술작품 가운데에는 사람의 발을 묘사한 사례도 비교적 자주 확인된다. 한국의 암각화 유적에서도 발을 묘사한 사례가 보인다.¹⁰⁾

여성의 음문, 젖가슴, 손과 함께 주목받은 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부적으로 쓰이고 선호되는 것이 ‘눈’을 형상화한 작품이다.¹¹⁾ 터키에서는 ‘나사르 분주’라 불리는 푸른 구슬이 부적처럼 여겨진다(그림 6). 악마의 눈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장식품은 ‘나사르(눈, 보다)’라는 아랍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어진다.



9) 엠마누엘 아나티, 이승재 역, 『예술의 기원』, 바다출판사, 2008, 354-372쪽.

10) 경주 석장동암각화에서는 사람 발자국 3점이 발견되었다(전호태, 앞의 책, 2013, 208쪽)

11) 고대의 여러 신화에서 ‘눈’은 신의 현존, ‘신이 보고 있다. 신은 알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언급되거나 표현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림 6) 나자르 본주(터키 기념품 상점)

그림 7, 8) 눈 조소품(시리아 텔 브락 눈 사원 출토, 영국 대영박물관)

그림 9) 인물상(이라크 마리 이쉬타르사원 출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그림 10) 여신상(레반트 고대 사원 출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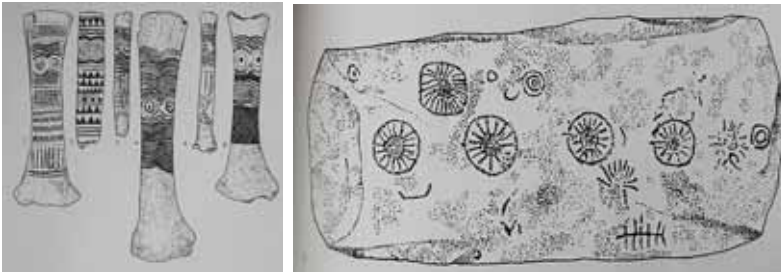
터키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인기 있는 나자르 본주의 기원은 신석기시대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원전 4400년~3700년 사이의 유적인 시리아의 텔 브락 유적에서는 한 건물지에서 천여 개의 눈 조각이 수습되었다(그림 7, 8).¹²⁾ 기원전 3700년에서 기원전 3500년 사이에 건축되고 사용되었

12) 시리아 텔 브락의 눈 사원 출토 조소품은 영국 대영박물관에서 소장, 전시하고 있다: Emberling, Geoff et al., "Excavations at Tell Brak 1998: Preliminary Report"

던 눈 조각 출토 건물지는 이후 눈 사원(Eye Temple)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에게 봉헌했거나, 부적과 비슷하게 쓰인 듯이 보이는 이 눈 조각들은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작되는 신상이나 영웅의 모습에서 눈이 과도하게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그림 9).

텔 브락(나가르)는 기원전 2250년경에는 아카드의 사르곤을 계승한 나람 신이 제국의 거점으로 삼은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레반트의 고대 사원에서도 눈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여신상이 다수 발견된 것도 텔 브락 눈 사원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10).

‘신의 눈’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조형 활동의 흔적은 유럽의 신석기시대 유적, 유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³⁾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의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유물 중에는 ‘눈 여신’으로 명명되는 작품들이 발견되는데, 텔 브락의 눈 조각처럼 뼈에 두 눈만 커다랗게 표현하고 있다(그림 11). 남동유럽 일대에서는 사발이나 점시에 광채가 나는 두 눈을 묘사한 경우가 확인되면, 북유럽 신석기 유적에서는 거석에 눈만 여럿 두드러지게 표현한 사례도 보인다(그림 12).



t,” *Iraq*, 61, 1999, pp.1~41; McMahon, Augusta, “Syria: Tell Brak,” *Current World Archaeology*, 52, 2012, pp. 28~34.

13) 마리아 김부타스, 고희경 역, 『여신의 언어』, 한겨레출판, 2016, 54~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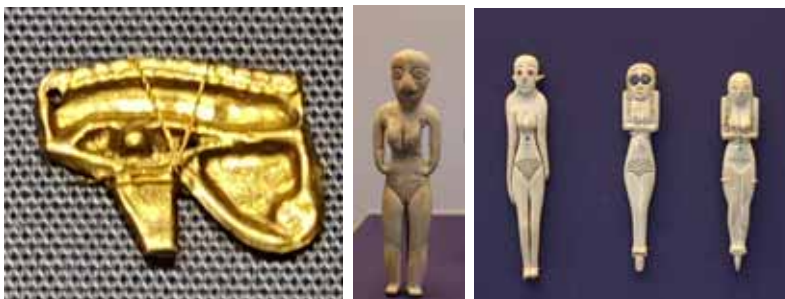


그림 11) 눈 여신(스페인 알미사라케 출토, 마리아 김부타스, 54쪽 도면 91 재인용)

그림 12) 빛을 내는 신의 눈이 새겨진 거석(아일랜드 도스 출토, 마리아 김부타스, 57쪽 도면 94 재인용)

그림 13) 와제트 눈 부적(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4, 15) 상아제 여인상(이집트 바다리 출토, 영국 대영박물관)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 호루스의 눈을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여겼다(그림 13). 이집트 신화에는 여신 와제트의 눈, 태양신 라의 눈, 호루스의 눈이 등장하는데¹⁴⁾,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난 호루스의 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호루스의 왼쪽 눈은 치유와 달을, 오른쪽 눈은 태양을 상징한다. 고대 이집트인이 가지고 있던 눈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이후 이집트 조각이나 회화에서 눈을 특별히 크고 뚜렷하게 묘사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그림 14, 15).

인도의 신화에서 창조신 시바의 제3의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한다(그림 16).¹⁵⁾ 고대 인도 신화에서 이 제3의 눈은 불을 내뿜어 다른 하위신을 재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우주의 빛을 복원하기도 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둘가 여신의 제3의 눈에서는

14)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2019, 116쪽.

15) 류경희, 『인도 힌두신화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참고; 불교의 마혜수 라친은 본래 힌두교의 시바신이다.

깔리 여신이 태어난다. 악마의 왕 마히샤수라가 자신이 우주의 지배자라고 선포하자 비슈누, 시바, 브라흐마, 인드라, 야마, 아그니 등의 신들의 제3의 눈에서 나온 빛은 한 점에 모여 여신 샷티를 태어나게 한다. 이 여신 샷티가 악마들을 쳐부순다. 인더스강 유역의 선사 및 고대 유적에서 눈이 커다랗게 표현된 여신 소조상이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런 신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림 17).



그림 16) 제3의 눈이 있는 마혜수라천(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7) 여신상(인더스강 유역 고대 사원 출토, 프랑스 기메미술관)

그리스신화에는 100개의 눈이 있는 거인 아르고스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등장한다(그림 18).¹⁶⁾ 헤르메스가 지팡이로 거인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이 감겨 잠들게 한 뒤, 목을 베어 죽이자 여신 헤라는 죽은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을 공작의 깃털에 붙인다. 신화에 묘사된 키클롭스의 외눈은 이마 한가운데, 지혜의 눈, 제3의 눈 자리에 있다.

16) 토머스 불핀치, 박경미 역, 『그리스 로마 신화』, 해원출판사, 2011 참고.

거인 키클롭스 삼형제의 이름은 각각 천둥을 일으키는 자(브론텐스), 번개를 일으키는 자(스테로페스), 선명하게 빛나는 자(아르게스)이다. 본래의 키클롭스들이 세상의 일에는 어두워도 지혜와 능력을 갖춘 신성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들이 선물로 준 천둥과 번개를 받은 제우스는 새로운 세대 신들의 왕이 된다. 그리스신화의 테이레시아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 논쟁에 불려 나갔다가 장님이 된 뒤 제우스로부터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받는다. 이는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지혜의 눈을 얻은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토기에도 눈이 자주 따로 묘사되는데, 이 역시 ‘신의 눈’과 같은,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과 관련 있는 듯하다(그림 19).



그림 18) 아르고스의 목을 베는 헤르메스(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 자료 공개도면)

그림 19) 눈이 그려진 그리스 토기(독일 알테박물관)

그림 20) 오딘 신을 묘사한 황금 펜던트(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 자료 공개도면)

북유럽신화의 주인공 오딘은 한쪽 눈을 건넌 대가로 현자이자 기억의 수호자인 미미르의 허락을 받고 지혜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신 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는다(그림 20).¹⁷⁾ 이런 까닭에 세계수(世界樹)인 이그드라실 아래 있는 지혜의 샘에는 오딘의 한쪽 눈이 담겨 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외눈박이가 된 신 오딘도

17) 닐 게이먼, 박선령 역, 『북유럽 신화』, 나무의 철학, 2019 참고.

제 몸의 눈 하나를 내놓고 ‘지혜의 눈’을 받은 경우이다.

히브리인의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와 눈’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가 모든 것을 보고 안다는 의미로 쓰인다.¹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용어는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의 소산으로 볼 수도 있다. 신의 눈이 세상을 늘 보고 있으니, 그 눈을 의식하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신화와 전설에서도 눈을 주제로 하거나, 눈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가 확인된다. 중국 상주(商周)시대 청동기에 표현된 도철문(饕餮紋)에서 눈에 띄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한 쌍의 눈이다(그림 21).¹⁹⁾ 사천 삼성퇴문화 유적에서 다수 발견된 신면(神面)의 튀어나오거나 과장되게 큰 눈도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22).²⁰⁾

중국에서는 상주시대부터 신화의 주인공들을 역사적 인물, 곧 왕이나 영웅으로 설정하여 서사하면서 기이하다고 여기는 기존의 종교 관념은 변형시키고 재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대신한 것이 청동거울이었던 듯하다.²¹⁾ 거울의 신비한 능력, 특별한 역할에 대한 중국의 괴담, 기사들은 눈 신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8) 히브리 성경의 ‘여호와와 눈’은 보통 ‘여호와 보시기에’로 번역된다(열왕기 상 11:6, 역대 하 34:2 등등). 시편 34:15, 잠언 15:3 등에서는 ‘여호와와 눈’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된다. 히브리어로 눈은 ‘아인’이다. 허재철, 『여호와와 눈』, 기독교문화사, 1993 참조.

19) 도철문의 가장 오랜 사례 가운데 하나가 양저문화 옥기 장식문이다(李學勤, 「良渚文化玉器與饕餮紋的演變」 『走出疑古時代』 遼寧大學出版社, 1994, 92~93쪽).

20) 리링 등, 정호준 역, 『중국 고고학, 위대한 문명의 현장』, 역사산책, 2021, 128~131쪽.

21) 청동 거울의 특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재서, 김지선의 글이 참고 된다(정재서, 「거울의 무속상 기능 및 그 문화적 수용」, 『중국어문학』 5, 1982, 5~22쪽; 김지선, 「청동거울에서 유리거울로-중국 서사 속 거울의 상상력」, 『중국어문학지』 27, 2008, 139~170쪽).



그림 21) 청동기에 표현된 도철(鬻饗)의 얼굴(중국 상해박물관)
 그림 22) 사천 삼성퇴 출토 신면(중국 국가박물관)

최초의 거울은 신석기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흑요석제 거울이다.²²⁾ 터키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타원형 흑요석을 반으로 잘라 단면을 거울 용도로 쓴 것이다(그림 23). 이후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거의 모든 청동기 문명권에 청동거울이 등장하여 제의용 도구로도 쓰이고, 실생활에도 사용된다.



그림 23) 흑요석제 거울(기원전 6000년경, 피스미스 토브락 출토, 터키 아나톨리아문명박물관)
 그림 24) 기이한 새와 짐승이 묘사된 청동거울(한, 중국 섬서역사박물관)
 그림 25) 개명수(한 화상석 탁본)

22) 터키의 피스미스 토브락 출토 흑요석제 거울의 제작 연대는 기원전 6000년경이다(아나톨리아문명박물관 소장).

초기의 청동거울이 제의용 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은 청동거울 뒷면을 장식한 다양한 무늬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림 24). 신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 새겨지거나, 번개무늬를 비롯한 다양한 기하문이 표현되기도 했는데, 내용상 이런 장식 무늬들은 거울이 주술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동기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거울 주술은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기능이 일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울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이야기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 거울의 주술적 기능은 지금도 사람들의 의식에 일부 남아 있다. 상점의 입구 위쪽에 청동거울이나, 현대의 유리거울을 걸어 놓는 것도 사악한 존재들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상점 안으로 들어오려 하다가도 거울에 자신의 본 모습이 비친 것을 보면 걸음을 돌릴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에 기댄 주술적 사고가 지금도 남아 있는 사례이다.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의 기능에 대한 믿음은 본래 ‘지혜의 눈, 진실의 눈’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것을 보고, 진실을 꿰뚫어 알아내는 신의 눈을 대신한 것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중국에서 거울의 주술적 기능에 대한 관념이 오래 남아 지금까지 전한 것도 본래 이런 관념이 ‘신의 눈’에 대한 주술적 이해나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신들과 정령에 대한 신앙의 흔적을 담은 『산해경(山海經)』도 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책이다. 『산해경』은 춘추전국시대, 심지어는 한대(漢代) 때까지 일부 남아 있던 산과 들, 강과 바다의 온갖 신 및 정령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재정리, 재서술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²³⁾ 산과 바다, 골짜ق과 강에 있는 신과 정령들을 신기한 짐승, 기이한 새, 혹은 보통의 것과는

23) 정재서, 『산해경』, 민음사, 2004, 16~17쪽.

다른 형상의 풀과 나무로 설명한다. 신으로 설명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어디, 어디에 효험이 있는 영약이거나 사람을 잡아먹는 괴수, 혹은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에 염병이 퍼지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등의 변고가 일어날 전조로 기술한다.

『산해경』에 소개된 이런 영약이나 재난, 사고의 조짐이 되는 생명체 가운데는 눈이 세 개, 네 개, 머리가 둘이나 셋, 심지어 아홉인 것이 여럿 나온다. 머리가 여럿이면 눈도 여럿인 셈이니, 본래 기이하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음이 확실하다. 시대의 변화 속에 단순히 기이한 생김의 생명체거나, 어디, 어디에 좋은 영약으로 여겨지게 되었지만, 본질은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지닌 신이나 정령이었던 셈이다. 옛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이었던 이들 기이하고 특별한 존재를 몇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동산경(東山經)에 소개되는 갈산의 주별어(珠鰓魚)는 눈이 넷이다. 먹으면 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농질은 머리가 아홉이고 꼬리가 아홉인데, 사람을 잡아먹는다. 중산경(中山經)에 등장하는 태봉(泰逢)은 움직일 때 빛을 내는 신으로 천지의 기운을 움직인다. 책의 삽화에 이 신은 두 눈에서 빛을 내고 있다. 눈이 셋인 대조는 먹으면 하체가 습한 병이 낫는다. 머리가 둘인 교충이라는 신은 눈이 셋으로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이다.

해외남경(海外南經)에는 한 몸에 머리가 셋인 사람들이 사는 삼수국(三首國)이 등장한다. 해외북경(海外北經)에는 눈이 하나인 사람들의 나라 일목국(一目國)이 소개된다. 머리가 아홉 개인 상류는 공공의 신하였으나 우임금이 그를 죽였다고 한다. 해외동경(海外東經)에 소개된 여덟 개의 머리, 다리, 꼬리를 지닌 천오(天吳)라는 신은 수신(水神)이다. 해외서경(海外西經)에는 사람 얼굴의 머리가 아홉인 개명수(開明獸)가 곤륜산의 정상에 서 있다고 쓰여 있다(그림 25). 대황남경(大荒南經)에는 머리가 둘인 출척이라는 짐승과 세 마리의 짐승이 한 몸이 되어 있는 쌍쌍이 소개된다. 대황서경(大荒西經)에는 대황의 서쪽 어딘가에 머리가 여섯인 축조가 산다고 한다.

여성 음문 표현은 한국의 암각화에도 자주 보인다. 안동 수곡리암각화는 암각화의 주제가 여성의 음문이다(그림 26, 27).²⁴⁾ 경주 석장동암각화, 포항 곤륜산 칠포리암각화, 고령 장기리암각화, 고령 봉평리암각화, 고령 지산동 암각화, 밀양 활성동암각화 등에는 여러 가지 암각문과 함께 여성 음문이 표현되어 눈길을 끈다. 암각화 가운데 여성의 음문을 겹이나 화살촉 모양과 붙여서 묘사한 경우는 남녀 합체, 혹은 성교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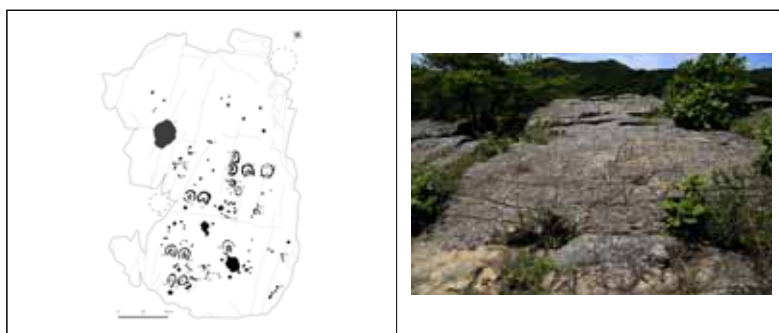


그림 26) 안동 수곡리암각화 실측도

그림 27) 안동 수곡리암각화

한국의 암각화 유적 가운데 음문이 새겨진 것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울산 천전리 각석 암각화이다(그림 28). 깊게 갈아 새긴 다수의 기하문 암각화와 함께 새겨진 여성의 음문들은 신석기시대 후기 이후 널리 퍼지는 농경제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림 29~31).²⁶⁾ 천전리 각석

24) 전호태·이하우·박초아, 『한국의 풍요제의 암각화』, Hollym, 2017, 153~154쪽.

25) 전호태, 「고령 장기리암각화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88, 2017, 291~330쪽.

26) 전호태, 「천전리 각석 암각화의 기하문 연구」, 『역사와 세계』 58, 2020, 217~252쪽.

암각화의 기하문이 신석기시대 작품인지, 청동기시대나 그 이후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농경시대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의식 중에 새겨진 건 확실하다. 기하문과 함께 새겨진 여성 음문에 대한 인식도 기하문에 투사된 관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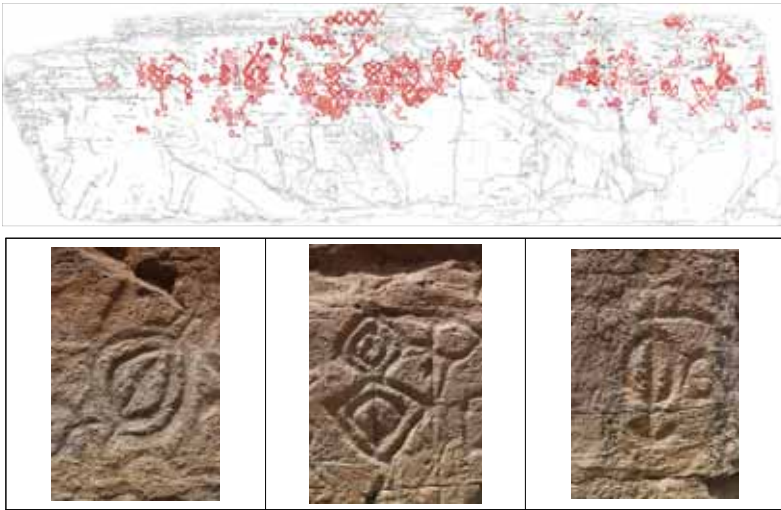


그림 28) 울산 천전리 각석 주암면 실측도(기하문)
그림 29~31) 울산 천전리 각석 여성 음문



그림 32) 양양 오산리 유적 출토 토제 인면
그림 33) 동래 동삼동 패총 출토 가리비 껍데기 인면

한국의 신석기유적 출토 유물 중에는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보인다. 옹기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서 출토된 뼈로 만든 도구 가운데 일부는 눈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고, 양양 오산리 유적 출토 토제 인면상도 눈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어 눈길을 끈다(그림 32). 신석기시대 유적인 부산 동래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가리비 껍데기도 눈과 입에 해당하는 구멍을 뚫어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려 한 사례여서 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그림 33).

그러나 고대 한국의 신화, 전설에서는 특별한 눈 관념 관련 이야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와 같이 지혜로운 이들은 등장하지만, 눈이 특별하다든가,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청동기시대 사이로 편년되는 암각화 유적 중에도 눈을 따로 표현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눈을 묘사한 유적은 상주 물량리암각화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고대사회를 언급한 다른 기록에는 진실의 눈, 지혜의 눈과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을까?

진실의 눈, 지혜의 눈, 제3의 눈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와 유사한 관념을 보이는 듯한 기사는 있다. 신라의 김유신이 전생(前生)에 고구려 사람이었다는 일화에서 그런 관념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²⁷⁾

[백석이] 말하기를 “저는 본시 고구려 사람으로 우리나라[고구려]의 여러 신하가 ‘신라의 유신은 바로 우리나라의 점쟁이[卜筮之士] 추남(楸南)이다.’ 라고 합니다. 나라 경계에 거꾸로 흐르는 물이 있어 왕이 그에게 이에 대한 점을 치게 하였습니다. [추남이] 말하기를 ‘대왕의 부인께서 음양의 도를 역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왕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으며 왕비도 몹시 노하여 이것은 필시 요사한 여우의

27) 『三國遺事』卷1, 「紀異」1 金庾信條.

말이라며 왕께 고하기를 ‘다른 일로써 그를 시험하여 말이 맞지 않으면 중형에 처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쥐 한 마리를 함에 담고, ‘이것이 무슨 물건이나?’ 고 물었습니다. 추남이 나와 말하기를 ‘이것은 틀림없이 쥐입니다. 그 수가 여덟 마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말이 틀린다 하여 죄를 씌워 죽이려 하니 추남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키리라.’ 하였습니다. 추남의 목을 베고 쥐의 배를 갈라 그 안을 보니 [새끼] 일곱 마리가 있어 그제야 그의 말이 적중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대왕께서 추남이 신라 서현공(舒玄公)의 부인 품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여러 신하에게 물어보니 모두 다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 여기 와서 유신공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공이 곧 백석을 죽이고 온갖 음식을 갖추어 삼신(三神)에게 제사 지내니 모두 몸을 나타내어 흠향하였다.

『삼국유사』의 이 기사는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이 점을 쳐서 함에 들어 있는 쥐의 수를 맞추었다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처럼 진실을 꿰뚫어 보는 심안(心眼), 곧 제3의 눈이 있어 아직 낡지 않은 암컷 쥐 뱃속의 새끼 일곱까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불교의 십일면관음이나 천수천안관자재보살[천수관음] 신앙을 고려하면 (그림 34, 35)²⁸⁾ 삼국시대 말기의 신라나 이후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있는 두 눈 이외의 눈에 대한 관념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밀교계통 종파인 총지종(總持宗)에서 주된

28) 십일면관음, 천수관음에 대한 다음 글이 참조된다. 리링 쑤, 조정래 옮김, 「十一面觀音像 圖像 연구」, 『美術史論壇』 19, 2004, 49~71쪽; 이경화, 「석굴암 십일면관음의 교학적 해석」, 『불교미술사학』 17, 2014, 71~96쪽; 황금순, 「韓國 千手觀音圖에 보이는 千手觀音 認識과 圖像의 變容」, 『미술사연구』 30, 2016, 7~38쪽; 문명대, 「홍천사 사십이수(四十二手) 천수천안 관음보살상(千手千眼觀音菩薩像)의 도상 특징과 편년연구」, 『강좌미술사』 49, 2017, 17~36쪽.

신앙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은 티벳 불교나 일본 불교에서도 중요한 신앙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34) 십일면관음보살(고려,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5) 천수천안관음보살(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수많은 손과 수많은 눈으로 온갖 업(業)과 인연(因緣)에 얽혀 사는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푼다는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인간이 눈과 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언젠가부터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대의 기록에 눈과 손에 대한 종교적 관념의 흔적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도 다른 문명권의 사례로 볼 때, 이와 관련된 설화나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동아시아에 불교가 전하면서 희미해졌던 진실의 눈, 혹은 지혜의 눈에 대한 관념이 사람들 사이에 되살아났을 수도 있다. 경주 석굴암에 모셔진 십일면관음을 다듬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조각가 역시 11개의 보살 머리와 22개의 눈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로만 전하던 특별한 능력을 지닌 눈에 대한 오랜 관념을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상주 물량리암각화는 눈을 나타내는 데 집중한 특이한 유적이다. 미완성인 상태로 눈을 새긴 것도 여러 점이어서 암각문을 새긴 이와 이 과정에 함께 한 이들이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암면 원편의 거의 온전한 인물상은 두 눈 사이에 세로로 긴 타원형을 나타내고 그 안에 눈으로 보이는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3개의 눈을 지닌 어떤 존재를 나타내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물론 그 곁의 또 하나의 눈을 이 눈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두 눈을 지닌 다른 존재가 인물 위에 표현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암각화의 주제가 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주 물량리암각화는 동아시아의 ‘눈’에 대한 종교적 관념의 흐름과 닿을 수 있는 유적이다. 한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눈 관념과 관련된 유물이 여럿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주 물량리암각화를 이런 유물들과 관련지어 논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 상주 물량리암각화 주암면 중심부 인물상 실측도
그림 37) 울산 반구대암각화 주암면 하부 수족과장형 인물상 실측도

암각화에 주로 눈이 새겨진 이유가 역사시대에 유행하는 불교 밀교 계통의

천수천안관음신앙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족과장형 인물을 표현하려 한 듯이 선으로만 사람의 몸을 나타냈다면(그림 36), 얼굴 외의 표현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한 사례를 고려하면 이런 식의 바위 새김이 불교 전래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수족과장형 암각의 사례는 울산 반구대암각화에서 확인되고(그림 37), 동아시아를 포함한 주요 문명권에서 눈에 대한 종교적 관념이 유행한 시기는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물론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인물의 눈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관습이 만들어져 후대에 전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주 물량리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굳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짚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삼한시대 지역사회에 남아 전하던 눈에 대한 종교적 관념이 바탕이 되어 낙동강변 암벽에서 이런 암각화가 제작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밀교 계통 신앙이 영향을 끼치면서 전통적인 무속 신앙의 한 갈래였던 눈 신앙이 암각화로 구체적 형상을 남기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암각화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시대, 심지어 고려시대 말까지 내려올 수 있다. 밀교 계통의 신앙은 사회가 극히 혼란스러워 백성이 받는 고통이 컸던 통일신라시대 하대나 고려시대 말에 오히려 더 널리 퍼지고, 깊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상주 물량리암각화의 제작 시기는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선사와 고대, 심지어 중세의 한국에 눈을 특별한 관념의 대상으로 여기고, 신앙하는 관습이 상주 지역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 확실하다. 앞으로 더 심화된 연구를 통해 물량리암각화 제작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환경 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상주 물량리암각화는 유사한 표현의 암각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발견, 보고 뒤에도 학계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제작 시기를 중요시하는 역사학계나 미술사학계, 고고학계는 물론 민간신앙이나 민속에서 비교할 만한 사례를 떠올리지 못한 민속학이나 종교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눈여겨볼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발견은 되었으나 분석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못한 유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의 특정한 부분이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신앙의 대상으로 승화되었던 오랜 역사를 떠올리면 암각화로 사람의 ‘눈’이 주로 새겨진 이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세계 여러 문명권의 신화와 전설에서 눈을 주제로 한 서사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눈’을 특별하게 묘사한 미술작품 역시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이나 서아시아, 심지어 동아시아의 중국의 신화, 전설을 기록한 문헌에서 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신석기시대의 관련 유물로 볼 때, 눈을 특별한 관념, 심지어 신앙 대상으로 삼은 역사는 최소한 기원전 3000년 이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눈에 대한 특별한 관념은 현대사회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에도 인도의 힌두교나 동아시아의 불교 종파 가운데에는 ‘지혜의 눈’ 관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상주 물량리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주 물량리암각화가 한국에도 눈을 종교적 관념의 대상으로 삼은 시기가 일정한 기간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눈에 대한 종교적 관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어느 정도 보편적이었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눈에 대한 종교적 관념의 역사가 신석기시대에 시작되어 역사시대까지 오랜 기간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상주 물량리암각화는 한국 종교신앙의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三國遺事』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2019.

김지선, 「청동거울에서 유리거울로-중국 서사 속 거울의 상상력」, 『중국어문학지』 27, 2008.

류경희, 『인도 힌두신화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문명대, 「홍천사 사십이수(四十二手) 천수천안 관음보살상(千手千眼觀音菩薩像)의 도상 특징과 편년연구」, 『강좌미술사』 49, 2017.

박영희, 「천전리암각화의 기하문양 중 마름모꼴의 상징성에 대한 일 고찰」, 『한국암각화연구』 6, 2005.

이경화, 「석굴암 십일면관음의 교학적 해석」, 『불교미술사학』 17, 2014.

전호태,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2013.

전호태, 「고령 장기리암각화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88, 2017.

전호태, 「천전리 각석 암각화의 기하문 연구」, 『역사와 세계』 58, 2020.

전호태, 『고대에서 도착한 생각들』, 창비, 2020.

전호태-이하우박초아, 『한국의 풍요제의 암각화』, Hollym, 2017.

전호태-이하우신지원, 『한국의 암각화 2020』, 울산대학교출판부, 2020.

정재서, 「거울의 무속상 기능 및 그 문학적 수용」, 『중국어문학』 5, 1982.

정재서, 『산해경』, 민음사, 2004.

허재철, 『여호와의 눈』, 기독교문화사, 1993.

황금순, 「韓國 千手觀音圖에 보이는 千手觀音 認識과 圖像의 變容」, 『미술사연구』 30, 2016.

리링, 조정래 역, 「十一面觀音像 圖像 연구」, 『美術史論壇』 19, 2004.

리링 등, 정호준 역, 『중국 고고학, 위대한 문명의 현장』, 역사산책, 2021.

李學勤, 「良渚文化玉器與饕餮紋的演變」, 『走出疑古時代』, 遼寧大學出版社, 1994.

닐 게이먼, 박선령 역, 『북유럽 신화』, 나무의 철학, 2019.

- 마리아 김부타스, 고희경 역, 『여신의 언어』, 한겨레출판, 2016.
- 엠마누엘 아나티, 이승재 역, 『예술의 기원』, 바다출판사, 2008.
- 토머스 불핀치, 박경미 역, 『그리스 로마 신화』, 해원출판사, 2011.
- Emberling, Geoff, et al., “Excavations at Tell Bank 1998: Preliminary Report,” *Iraq*, 61, 1999.
- McMahon, Augusta, “Syria: Tell Brak,” *Current World Archaeology*, 52, 2012.

The eye idea in Prehistoric and Ancient Korea as
seen in Sangju Mulryang-ri Petroglyphs

Jeon Hotae (Jeon, Ho Tae)

The theme of Sangju Mulryang-ri Petroglyphs, found in the rock surface by the Nakdong River, is “human eyes.” The oldest example of religious idea of the eye is the eye idols found in the Eye Temple of Tell Brak, Syria, dating back to the late Neolithic Period. Such the religious idea of the eye as found in the Eye Temple likely influenced how the Mesopotamians since the Bronze Age depicted their ancient gods and heroes with prominent eyes. In the ancient Egypt, the eye became the special object of worship, establishing a unique symbol of the Eye of Horus. That the Egyptians took special care in depicting the eye on the figures in art likely stemmed from such ideas as well. The Indian mythology mentions the third eye or the inner eye while the Greek mythology present Argos, the giant with 100 eyes. These stories probably owe their origins to religious idea of the eye as well.

While the Chinese mythology and legends were historicized early on, the *tao tie wen* (饕餮紋) of Xiang and Zhou dynasties and *san xing dui* (三星堆) of Sichuan depict very prominent eyes. The traces of religious idea of the eye can also be found in the book *Shan Hai Jing*(山海經), an altered narrative. The curious beings with eight or nine human heads

mentioned in this book suggest that religious idea of the eye existed in the certain regions of China. The multiple strange tales of mirrors with special powers can also be considered an interaction of religious idea of the eye.

The Korean mythology and legends do not include much about religious idea of the eye. But few stories regarding the “truth-seeing eye” such as the story of an fortune teller Chunam(楸南) remain. The eleven-headed bodhisattva or thousand hands thousand eyes bodhisattva from the Esoteric Buddhism during the late Unified Silla Period or Koryeo Dynasty Period may have introduced the elements of religious idea of the eye to the folk religious tradition. Considering that the multiple artifacts from the Neolithic Korea emphasize the eye, the Sangju Mulryang-ri Petroglyphs hold a special place in the Korean religion in that it is the product of the prehistoric and ancient religious idea of the eye in Korea.

Key Words : Sangju, Mulryang-ri Petroglyphs, the eye idea, the truth-seeing eye, the Esoteric Buddhism